

제103주년

# 3·1절 기념식



포덕 163(2022)년 3월 1일

천도교중앙총부



제103주년

# 3·1절 기념식



포덕 163(2022)년 3월 1일

천도교중앙총부



## 식 순

1. 개 식
1. 국 민 의 례
1. 청 수 봉 전
1. 심 고
1. 주문3회병송
1. 독립선언서 낭독
1. 천덕송 합창(공락가1-3)
1. 기 념 사
1. 3·1절 노래 합창
1. 만 세 삼 창
1. 심 고
1. 폐 식

# 기 념 사

존경하는 국내외 동덕여러분!

오늘은 청사에 빛나는 3·1독립운동이 일어 난지 103주년이 되는 뜻 깊은 날입니다. 항상 이날이 되면 우리 천도교인들은 3·1독립운동을 계획하고 주도했던 천도교단의 위대한 역사를 상기 하면서 특별한 자긍심을 느끼게 됩니다.

기미년(己未年, 1919)의 3·1독립운동은 모름지기 민족정신의 정화(精華)로서 우리 민족사에 처음 있는 장엄한 행진이었습니다.

국권을 침탈한 일제가 무단통치를 자행하던 식민 치하에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동귀일체(同歸一體)를 이루었던 3·1운동은 민족사에 있어 불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전문(憲法前文)에 3·1정신을 건국이념으로 명시하고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의암성사께서는 1910년에 경술국치(庚戌國恥)을 당하자 “앞으로 국권회복은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터이니 반드시 10년 안에 이것을 이루어 놓으리라”고 결연히 말씀하셨습니다.

일제는 우리나라를 강점한 후 학교와 종교단체를 제외한 모든 사회단체를 해산시키는 한편 언론·출판·집회·결사를 일체 엄금하였습니다. 특히 배일 성향이 강한 천도교를 유사종교(類似宗教)로 분류하여 여타 종단과 달리 경무국에서 관할토록 하면서 성미제(誠米制)의 폐지와 경전 내용 일부를 삭제하도록 강압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의암성사를 헌병대로 불러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박은식(朴殷植)은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서 “일제는 천도교에 대한 음해 증상은 물론 종교단체 임을 부인하면서 각지의 교구를 감시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의암성사께서는 천도교의 지도자로서, 또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정신적으로 일제의 위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쌍두마차와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교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민족적 자존심을 과시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경술국치 이후 천도교의 교세는 국내는 물론 만주지역으로까지 크게 확장되어 3백만에 이르는 최대의 교단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내외 동덕 여러분!

3·1운동은 수운대신사의 보국안민정신에 입각한 의암성사의 구국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역사적 결정(結晶)이며 민족사적 쾌거였습니다. 당시 대중화·일원화·비폭력의 독립운동 3대원칙을 비롯해서 거사자금의 전담, 우이동 봉황각에서 전국 종건 교역자 483명 49일 특별수련, 중앙대교당 건축을 명



분으로 거사자금 마련, 33인 민족대표의 선정, 보성사에서 독립선언서 인쇄, 거사 당일의 「조선독립신문」 발행 등 시종일관 천도교단의 치밀하고 조직적인 역할에 의해 종파를 초월한 거국적 3·1 독립운동이 들불처럼 국내외로 전개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천도교에서 비밀리에 발행한 「조선독립신문」은 군중들의 만세시위에 대해 “손발로 춤추듯(手舞足蹈) 바람과 조수가 휘몰아치는(風蕩潮湧) 기세로 장안(長安)을 뚫고 나갔다”고 하면서, “죽은 고목(枯木灰死)이 아닌 우리 민족, 갇혀있는 금붕어나 새(金魚籠鳥)가 아닌 우리 민족으로서 누가 감격하여 울지 않으리오”라고 기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헌병경찰을 앞세운 무단통치 아래서 일제의 삼엄한 정보망을 뚫고 거족적으로 이루어진 3·1운동은 한마디로 한울님의 감응으로 가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학계 일각에서도

3·1운동에 대해 기적이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3·1운동으로 인해서 천도교는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암성사를 비롯한 민족대표 외에도 대도주인 춘암상사님을 비롯해서 교단 지도부가 거의 체포 구금되는 것은 물론, 중앙총부는 용산의 일본군 1개 대대가 포위 점령하여 기능이 마비되었고, 전국적으로 교인과 교구의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재정적인 피해 또한 극심하여 교단에서 경영하던 보성전문학교와 동덕여학교를 비롯한 많은 교육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이와 같이 막대한 피해를 당했으나, 3·1독립운동은 민족의 자긍심을 일깨우며 임시정부를 탄생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외 여러 임시정부가 형성되던 초창기에는 의암성사님을 국가수반으로 추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

은 당시 우리 민족이 3·1운동에서의 의암성사님의  
영도력은 물론이요 천도교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  
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동덕 여러분!

3·1정신은 우리 민족공동체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첫 번째 가치라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  
니다. 그것은 독립선언서의 첫머리에서 밝힌 것처럼  
'독립'과 '자주'가 3·1정신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만방에 고하여 인류평등의 대의(大義)  
를 극명하며, 차(此)로써 자손만대에 고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正權)을 영유케 하노라”고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천도교가 3·1운동을 주도하였다는 차원  
을 넘어 3·1정신이야말로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  
유케’하기 위해 우리 민족이 반드시 지키고 공유해  
야 할 가치요, 대의명분이라는 사실입니다.

3·1운동이 일어 난지 103주년이 된 오늘도 코로나19로 인해 국내뿐만 전 세계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에 그대들은 가히 하지 못할 일을 생각지 말고 먼저 각자가 본래 있는 정신을 개벽하라”는 의암성사님의 뜻을 받들어 실천하면서 코로나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덕 여러분,

우리 천도교는 선열들의 피와 땀으로 세계 속에 자랑스러운 역사를 써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천도교의 역사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다함께 하여야 합니다. 선열들로부터 물려받은 강인한 정신으로 민족의 웅비와 세계의 변화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도전의 여정을 함께 열어 나갑시다.

만물이 모두 한울님을 모셨으니 우주 만물이 다 하나요, 오심즉여심(吾心卽汝心)의 시천주 신앙을

바탕으로 한 정신개혁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또한 천도교는 천도교인만의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이는 온 누리에 펼쳐야 하는 포덕천하의 과제입니다.

물질문명의 발달에서 야기되는 각자위심, 대립과 갈등, 민족의 분단, 자연의 파괴 등 모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광제창생 하는 것은 인내천의 동귀일체로써 사람답게 사는 세상인 지상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여야 할 포덕천하로의 행동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103주년 3·1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3·1 정신을 상기하면서 기념사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포덕 163(2022)년 3월 1일

교령 송 범 두 心告

## 제17장 공락가

1. 천 도교 의 한 울 북-에 소 리 소 리 울 리-니  
 2. 천 도교 의 성 주 소-리 세 간악 마 도 망하니  
 3. 천 도교 의 거 록 한-덕 널 리널 리 떠 --니  
 4. 천 도교 의 화 한 바-람 은 누리 에 부 --니

1. 깊 은 밤 에 잠 -든 세 계 놀 -라 깨 도 다  
 2. 승 전 고 틀 울 리는 곳 에 궁 울 기 날 도 다  
 3. 함 포 고 복 우 -리 인 류 서 로 노래 하 세  
 4. 화 흥 초 록 봄 - 언덕 에 온 갖 새 부르짖 네

후렴

든 도 보 도 못 -한 이 - 풍 류 에

한 울 나 라 한 울 백 성 같 이 즐 기 세

## 삼일절 노래

기 미 년 삼 월 일 일 정 - 오  
터 지 자 밀 물 같 은 대 한 독 립 만 세  
태 극 기 곳 곳 마 다 삼 천 만 이 하 나 로  
이 날 은 우 리 의 의 요 생 명 이 요 교 - 훈 이 다  
한 강 물 다 시 흐 르 고 백 두 산 - 높 았 다  
선 열 하 이 나 라 를 보 소 서  
동 포 야 이 날 을 길 이 빛 내 자

## 독립선언서

우리는 오늘 조선(우리나라)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우리나라 사람)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이 선언은 오천 년 동안 이어 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 것이며, 이천만 민중의 정성을 모은 것이다.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하려는 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 변화의 큰 흐름에 발맞추려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 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 독립을 가로막지 못한다.

넓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우리 민족이 수 천 년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리는 고통을 받은 지 십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 살아갈 권리를 빼앗긴 고통은 헤아릴



수 없으며, 정신을 발달시킬 기회가 가로막힌 아픔이 얼마인가. 민족의 존엄함에 상처받은 아픔 또한 얼마이며,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 문화에 기여할 기회를 잃은 것이 얼마인가.

아, 그동안 쌓인 억울함을 떨쳐 내고 지금의 고통을 벗어던지려면, 앞으로 닥쳐올 위협을 없애 버리고 억눌린 민족의 양심과 사라진 국가 정의를 다시 일으키려면, 사람들이 저마다 인격을 발달시키고 우리 가여운 자녀에게 고통스러운 유산 대신 완전한 행복을 주려면,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이천만 조선인은 저마다 가슴에 칼을 품었다. 모든 인류와 시대의 양심은 정의의 군대와 인도의 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켜 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가 싸우면 어떤 강한 적도 꺾을 수 있고, 설령 물러난다 해도 이루려 한다면 어떤 뜻도 펼칠 수 있다.

우리는 일본이 1876년 강화도조약 뒤에 갖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일본을 믿을 수 없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다. 일본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문화 민족을 야만인 대하듯 하며 우리의 오랜 사회와 민족의 훌륭한 심성을 무시한다고 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스스로를 채찍질하기에도 바쁜 우리에게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 가는 것이지 결코 오랜 원한과 한순간의 감정으로 샘이 나서 남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낡은 생각과 낡은 세력에 사로잡힌 일본 정치인들이 공명심으로 희생시킨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자연스럽게 올바른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 민족이 바라지 않았던 조선과 일본의 강제 병합이 만든 결과를 보라. 일본이 우리를 억누르고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으로 꾸민 통계 숫자에 따라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원한이 생겨나고 있다. 과감하게 오랜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여는 것이, 서로 재앙을 피하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또한 울분과 원한에 사무친 이천만 조선인을 힘으로  
억누르는 것은 동양의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니다.  
이는 동양의 안전과 위기를 판가름하는 중심인 사역  
만 중국인들이 일본을 더욱 두려워하고 미워하게 하  
여 결국 동양 전체를 함께 망하는 비극으로 이끌 것이  
분명하다. 오늘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이 정당  
한 번영을 이루게 하는 것인 동시에,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  
이다. 또 중국이 일본에 땅을 빼앗길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세계 평화와 인  
류 행복의 중요한 부분인 동양 평화를 이를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선의 독립이 어찌 사소한 감정의  
문제인가!

아,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으로 억누  
르는 시대가 가고, 도의(인도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지난 수천 년 같고 닳으며 길러온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문명의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새봄이 온 세상

에 다가와 모든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구나. 뽕뽕 언  
얼음과 차디찬 눈보라에 숨 막혔던 한 시대가 가고, 부  
드러운 바람과 따뜻한 별에 기운이 돋는 새 시대가 오  
는구나.

온 세상의 도리가 다시 살아나는 지금, 세계 변화의  
흐름에 올라탄 우리는 주저하거나 거리낄 것이 없다.  
우리는 원래부터 지닌 자유권을 지켜서 풍요로운 삶  
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원래부터 풍부한  
독창성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세계에 민족의 우  
수한 문화를 꽃피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떨쳐 일어나는 것이다. 양심이 나와 함  
께 있으며 진리가 나와 함께 나아간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어둡고 낡은 옛집에서 뛰쳐나와, 세상 모두와 함  
께 즐겁고 새롭게 되살아날 것이다. 수천 년 전 조상의  
영혼이 안에서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기운이 밖에  
서 우리를 지켜 주니, 시작이 곧 성공이다. 다만, 저  
앞의 밝은 빛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뿐이다.

## 세 가지 약속

하나, 오늘 우리의 독립 선언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고귀하고 세상에 빛남)을 위한 민족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드날릴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 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하나,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조선을 세운 지 4252년 3월 1일(1919년 3월 1일)

## 조선 민족 대표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용성 김완규 김병조 김창준  
권동진 권병덕 나용환 나인협 양전백 양한묵 유여대  
이갑성 이명룡 이승훈 이종훈 이종일 임예환 박준승  
박희도 박동완 신흥식 신석구 오세창 오화영 정춘수  
최성모 최 린 한용운 홍병기 홍기조





## 천도교중앙총부

03147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57(경운동 88)

[www.chondogyo.or.kr](http://www.chondogyo.or.kr) [webmaster@chondogyo.or.kr](mailto:webmaster@chondogyo.or.kr)

TEL +82-2-732-3956 FAX +82-2-739-4533